

"감사와 나눔으로 맞이하는 추석"

시편 100:4-5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석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명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음식을 통해,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고, 우리는 그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추석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잠시 멈추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축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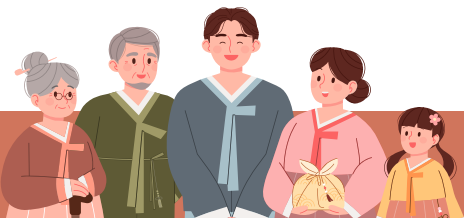
2. 나눔의 중요성

추석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3. 조상과의 연결, 그리고 신앙의 전수

추석은 또한 우리 조상들과의 연결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후손에게 물려준 전통을 기억하고 좋은 것을 후손에게 물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물려 받은 신앙을 자녀,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추석 명절을 맞아 모든 가족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2024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가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기 도 ----- 말은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
합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100편 4-5절 ----- 다같이

-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설 교 ----- 인도자

삶 나누기 **실천1**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할 기도 제목을 이야기 합니다. 다같이
실천2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을 나눕니다.

온가족기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주 안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